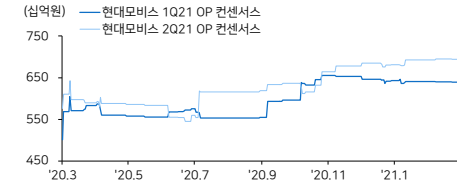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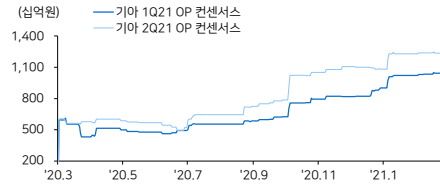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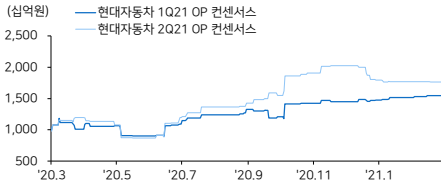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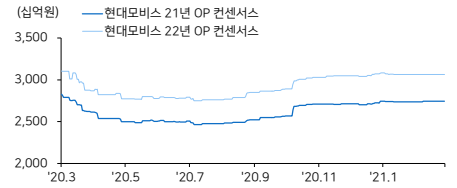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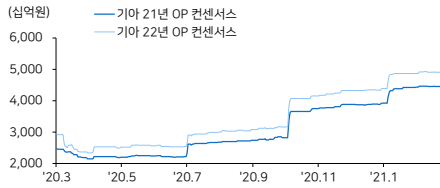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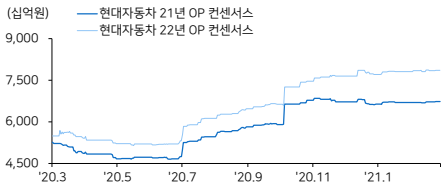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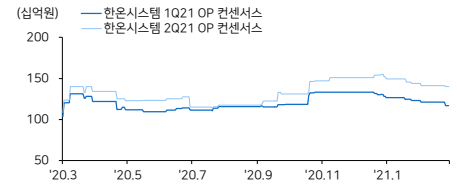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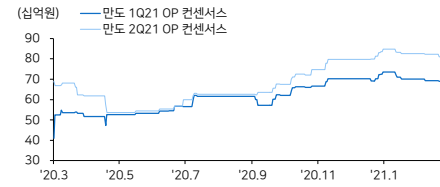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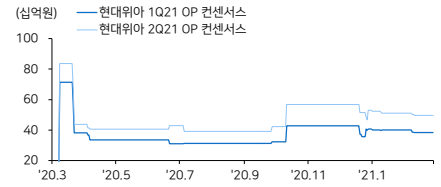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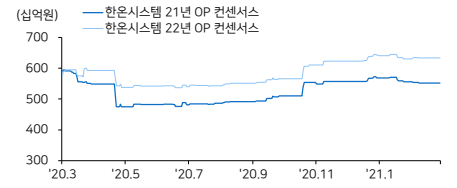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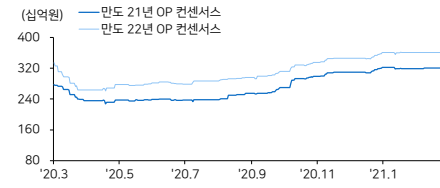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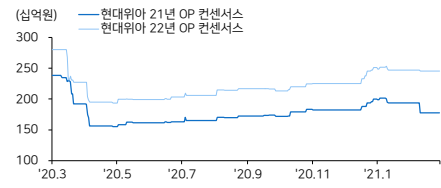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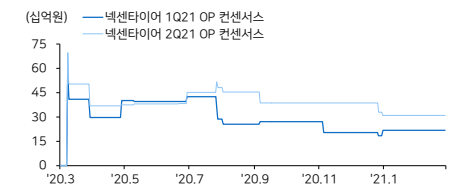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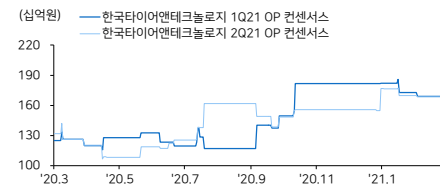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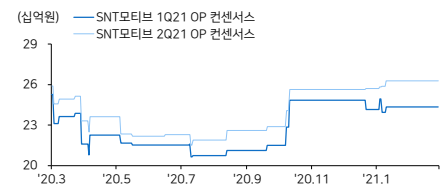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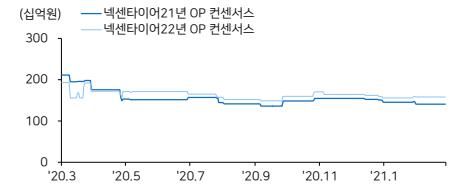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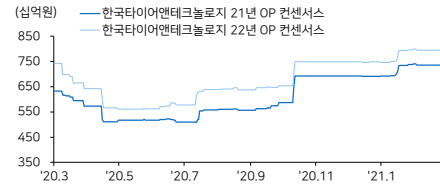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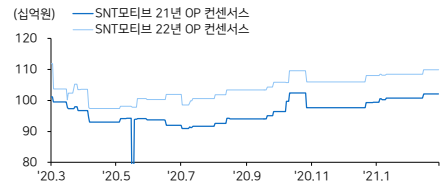
현대차 / 기아차 / 현대모비스



현대우아 / 만도 / 한은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현대차, 전기차 전용 플랫폼에 독일산 인버터 장착 (연합뉴스)

최근 현대차는 독일 콘티넨탈 그룹의 파워트레인 사업부인 비테스코와 전기차용 800V 인버터 공급 계약을 체결. 향후 출시할 E-GMP 적용 모델과 파생 전기차에 적용할 것으로 보이며, 양산이 이미 시작된 아이오닉5에는 사용되지 않음.
<https://bit.ly/3cmCXfn>

스타리아 라운지 카니발 정조준, 플래티지는 4,603만원 (탑라이다)

스타리아 라운지는 스타리아의 고급형 모델로 기아 카니발의 잠재 고객을 타겟으로 하며, 25일 사전예약이 시작됨. 9인승과 7인승으로 운영되며, 라운지 전용 내외관 디자인을 통해 일반 모델과 차별화됨. 가격은 3,661 ~ 4,603만원.
<https://bit.ly/3tZqap9>

핑크 안 나는 타이어, 내년엔 나온다... "NASA 기술 적용" (ZDNet Korea)

미국 타이어 스타트업 '스마트(SMART)'가 미 항공우주국(NASA)과 협업해 형상기억합금을 이용하여 핑크가 나지 않는 자전거 타이어를 내년 초 출시할 예정. 2022년부터 정식 판매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일정과 가격은 아직 미공개.
<https://bit.ly/3lR3m7U>

주식 '르논' 니콜라 손절 (THE GURU)

니콜라의 창업자 트레버 윌턴과 긴밀한 연을 맺었던 미국 철강회사 워싱턴인더스트리가 니콜라 주식을 대량 처분함. 미국 제너럴 모터스(GM)와 한화에 이어 워싱턴인더스트리마저 니콜라에서 손을 떼며 사기 의혹의 여파가 지속되는 중.
<https://bit.ly/3ckhSSu>

쌍용차에 남은 시간 '7일'...HAAH로 쏠리는 눈 (블로터)

쌍용차가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위기에 몰린 가운데 법원이 이달 말까지 쌍용차에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할 것을 요구함. 잠재적 투자자로 거론되는 HAAH모토티브의 인수 의지를 확인하려는 차원으로 해석됨.
<https://bit.ly/3l1KNzj>

후 렌트 · 리스업체 10곳 '2030년까지 100% 전기 · 수소차 전환' (한국경제)

국내 10개 자동차 렌트 · 리스업체들이 "2030년까지 보유 차량을 100% 전기 · 수소차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함. 이들의 보유 차량은 약 69만 7,000대로, 현실화되면 당초 2030년 정부 보급목표의 25.7%를 이들 업체가 차지하게 됨.
<https://bit.ly/3f10Cxs>

테슬라의 자신감...중국서 모델Y 판매가 올랐다 (한국경제)

테슬라는 전일 중국에서 생산중인 모델Y SUV의 판매 호조에 가격을 약 8,000위안(138만원) 올림. 지난 2월 테슬라는 중국에서 1월 판매량 1,641대를 훨씬 상회하는 4,330대의 모델Y 차량을 판매했음.
<https://bit.ly/3rhsw0M>

폭스바겐, 체코 투자 현실화?...물밑 접촉 활발 (THE GURU)

독일 폭스바겐의 자회사 스코다(Skoda)가 체코에 투자 가능성을 시사함. 현지 정부도 막대한 지원을 제공하기로 하며 유럽 배터리 생산 거점 중 하나로 체코가 부상하는 중.
<https://bit.ly/3v7Y1MC>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